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6~9/22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이뭐꼬	퇴옹성철	장경각	6	묘법연화경	광우,정목	김영사
2	영원한 자유의 길	퇴옹성철	장경각	7	깨달음에 이르는 길	총카파/청전 지영사	
3	생각이 길이다2	용타	민족사	8	아비담마 길라잡이(1)	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4	소설 금강경 법회 수보리의 회상	고닐	북이랑	9	인연이 깊을수록 미안한 게 많다	지안	불광출판사
5	스님의 맛	장보배	모과나무	10	염주의 역사와 수행이야기	태경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무영수 영원의 나무	금강	담마북스	6	설전	성철,법정/원택	책읽는섬
2	선의 황금시대	오경웅/류시화	경서원	7	숨을 쉬세요, 당신은 살아 있어요	틱낫한	운주사
3	요가 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8	불멸(3)	이각	지혜의눈
4	명상 온톨로지	정순일	운주사	9	고광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5	숫타니파타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0	보살이 되는 중입니다	샨티데바	붓다스쿨

불화에 깃든 간절한 마음



볼수록 아름다운 우리 불화
김소연 지음
미술문화
2만2000원

고려-조선 대표 불화 40점 소개
불보살 모신 예경 대상이자 성보
망자 · 산 자 위로하는 마음 담겨
숨은 상징과 의미로 새롭게 읽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1684년 영주 부석사에서 제작된 이 괘불은 1745년 청풍(지금의 제천) 신륵사에 옮겨 안치됐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사진 제공=미술문화

불화(佛畫)는 법당에 모셔진 예경의 대상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화다. 그러나 한 폭의 불화에는 수많은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가족의 건강과 국가의 안녕,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불화 조성을 발원한 이들.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붓을 든 화승(畫僧)들.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불화 앞에서 기도를 올린 이들까지. 불화는 그렇게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을 품어왔다.

〈볼수록 아름다운 우리 불화〉는 고려부터 조선 말까지 제작된 수월관음도, 아미타내영도, 감로도, 괘불 등 대표적인 불화 40여 점을 소개한다. 불화의 아름다움과 도상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화를 만들고 후원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들여다본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부석사 괘불'이다. 1684년 제작된 이 괘불은 높이 9m에 달하는 대형 불화다. 그런데 영주 부석사에는 이를 모본(母本)으로 1745년 새롭게 제작한 괘불이 한 점 더 있다. 부석사는 왜 60년 만에 다시 괘불을 제작했을까?

저자는 괘불에 남겨진 화기(畵記)를 바탕으로 그 제작과 이동 과정을 추적한다. 1723년 충청도 일대에 대홍수가 발생하자 수해를 입은 청풍 무림사가 인근 월악산 자락의 옛 신륵사터에 절을 다시 세웠고, 이후 1745년 부석사가 신륵사에 괘불을 보시했다는 것이다. 재난을 딛고 일어선 이웃 사찰에 대한 응원이자, 상처 입은 백성들의 위로하려는 마음이 불화와 함께 전해졌다는 해석이다.

1235년 고려 무인 김의인이 발원한 '오백나한도'도 흥미롭다. 몽골의 침입이 이어지던 시기, 황해도 해주의 하급 무관 김의인은 동료들과 함께 '오백나한도' 제작을 이끌었다. 그들은 불화에 국토의 평안과 임금의 안녕을 기원하고 침략군이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비록 기도가 전쟁을 멈추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절박한 염원은 8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저자는 인물의 표정과 몸짓, 옷과 장신구, 화면 한구석의 작은 사물처럼 지나치기 쉬운 세부 요소를 자세히 살피며 복잡한 도상을 알기 쉽게 풀어낸다.

가령 고려시대 수월관음도에는 중국이나 일본의 수월관음도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두 그루의 대나무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의상 대사가 관음보살의 계시를 받아 두 줄기의 대나무가 솟은 자리에 낙산사를 세웠다는 〈삼국유사〉의 설화와 연결된다. 그림 속 작은 대나무 두 그루가 우리 불교문화의 독특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셈이다.



'부석사 괘불' 속 석가모니불의 설법회에 모인 군중들. 사진 제공=미술문화

또한 보스턴미술관 소장 '치성광불강림도'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사불회도' 같이 인물이 많이 등장하는 불화는 선(線) 일러스트를 배치해 각 존재의 이름과 역할을 한눈에 살펴보도록 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불화를 발원하고 후원한 이들, 사찰에 모시고 예배한 사람들, 이를 옮기고 수집하고 연구한 이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책 속 불화에 오래 눈길이 머문다.

저자 김소연 국민대 교양대학 조교수는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고려 치성광불도 연구로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호림박물관 학예사를 지냈으며 여러 대학에서 강의했다. 현재 고려 불화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해상 신앙과 시각문화를 연구하며 불교미술 연구에 디지털 도구를 접목한 방법론적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

다시 나를 만나는 여정



쉼 숨 섬
김한수 지음
생각정원
2만원

멈추고 숨 쉬고 홀로 서는 방법
스님 · 신부 등 27명의 마음 찾기

"누구나 태어나지만, 모두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아니다."

23년간 종교전문기자로 활동해 온 저자가 지난 2년간 '조선일보'에 연재한 '마음을 찾는 사람들' 인터뷰 가운데 27명의 이야기를 책에 담았다. 종교와 직업, 나이를 넘어 '인간은 어떻게 마음을 돌보며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책의 제목인 '숨 쉼 섬'은 가평 '가락재 영성원' 마당에 세워진 비석 글귀에서 따온 것으로 안식과 휴식(쉼), 영적인 호흡(숨)을 통해 스스로 홀로 서는(섬) 순환 고리를 뜻한다.

책에는 국민 마음 평안을 위해 선명상 대중화에 힘써온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세계적인 영성가 안셀름 그륀 신부, 명상 연구자 존 카밧진을 비롯해 래퍼 김하온, 만화가 이현세, 화가 박대성 등 서로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어떤 이는 명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어떤 이는 기도를 통해 신과 더 깊이 연결되고자 했다.

불교의 선(禪)과 가톨릭의 관상, 개신교의 묵상, 원불교의 좌선, 현대의 마음챙김까지 이름과 방법은 다르지만, 이들이 마주한 끝은 하나였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믿음에 이르는 것.

진우 스님은 '선명상'을 "선(禪)으로 가는 문"이라고 설명한다. 궁극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수행도 중요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는 일상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명상 수행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선명상을 통해 선에 관심이 생긴 분들에게는 '진짜배기 선'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한다.

"불교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여유와 평안, 평온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선명상'이 하나의 일상 언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전에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국민체조'를 했듯이, 온 국민이 함께하는 '마음 평안 운동'을 하자는 것이죠."

책에서 말하는 명상은 쉴 새 없이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의 몸과 호흡으로 돌아오는 일이다. 그 짧은 멈춤만으로도 생각의 소음이 잦아들고, 자신을 몰아세우던 마음에 여백이 생긴다. 그리고 그 작은 여백이 나를 만나는 자리가 된다.

여수령 기자



〈쉼 숨 섬〉은 27인의 인터뷰를 통해 삶의 의문과 괴로움을 넘어서는 힘은 자기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은 지난 6월 영암 도갑사에서 열린 '2026 선명상축제 영암'에서 진행된 소리치유 선명상 프로그램. 현대불교 자료사진

대한불교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재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범어사 말사
대운사 주지 주석
연지사 주지 지안
재)명경문화재단 KUmuda

